

[로스쿨 합격기]

로스쿨생이 아닌 법조인을 목표로

김 호 정

- 청주 교원대학교부설고등학교 졸업
- 한국외국어대학교 독일어과 졸업
-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17년 입학



I. 들어가며

따뜻한 미풍이 불어오는 봄이 어느덧 시작되고, 4월의 로스쿨은 중간고사를 대비하는 학생들의 열의로 뜨겁습니다. 시간을 내어 입학울 준비했던 지난해를 돌이켜 보며, 올해 로스쿨 입시로 치열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예비 법조인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합격기를 시작해봅니다.

저는 학부시절, 법학과는 전혀 상관없는 공부를 하였고 졸업 후 취업 또한 법과 관련 없는 분야로 했습니다. 다만, 사회 이슈나 정치에 관심이 많은 편이었고 특히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단체에 지속적으로 후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인연을 맺고 있는 시민단체, 그리고 직장 생활 중 간접적으로 노사갈등을 겪으며 노무사라는 직종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특정 조직에 속하기 보다 개인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전문자격증을 따야겠다는 결심으로 퇴사를 하였고, 노무사 1차는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2개월만에 어렵지 않게 합격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로스쿨은 제게 너무 멀게만 느껴지는 영역이었지만 노무사 2차 준비를 하며 조금씩 법조인의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법학은 우리의 생활 근거리에 존재했고, 소송대리권이 없는 노무사만으로는 제가 진정 하고자 하는 일에 한계가 올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현직 노무사,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을 만나 많은 조언을 얻고 고민을 하였습니다. 그 끝에 유예를 두고 준비했던 노무사 2차 준비를 그만두고, 2016년 1월부터 본격적인 로스쿨 입시에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II. 토익

로스쿨 진학을 위해 가장 먼저 시작한 일은 토익 공부였습니다. 취업준비를 할 때 이미 900점이 넘는 점수를 받은 적이 있고, 또 전공이 어학이어서 그런지 토익 점수를 올리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진 않았습니다. 많은 이들이 추천하듯, 토익 점수는 늦어도 3월이 되기 전에는 900점 이상을 만들어 놓는 것이 좋습니다. 리트 공부에 전념하기 어려움은 물론이고, 리트를 친 이후까지도 토익을 계속 응시하게 되면 면접과 자소서에도 집중하기가 어려워 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무엇보다 토익은 학문으로서의 영어 실력을 평가하기보다 실용성에 주안점을 둔 시험으로 집중해서 단기간에 빨리 끝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토익 공부를 위해 따로 학원을 수강하거나, 인터넷 강의를 듣지는 않았습니다. 가장 기본서인 해커스 RC만 1회 꼼꼼히 풀어 보았고, 10회 분량의 실전 문제집도 2권만 구매했습니다. 많은 문제를 푸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틀린 문제를 다시 틀리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강의나 문제집을 통해 양을 늘리기보다는 오답노트를 만드는데 가장 신경을 썼습니다. 어휘책도 따로 보지는 않았으며, 모르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어장에 쓰고 암기했습니다. 혹시나 저처럼 어휘가 부족해서 고민이시라면, 사전 어플리케이션을 추천 드립니다. 모르는 단어를 실제 단어장처럼 만들어 간단하게 테스트를 볼 수 있어서, 잠자기 전이나 잠이 날 때마다 이를 통해 특별히 시간을 들이지 않고서도 어휘 공부를 쉽게 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오답노트를 통해 자주 틀리는 문제를 반복적으로 풀고, 약점을 채워나가는 식으로 토익은 대비했으며, 그 결과 3번째 토익에서 950점이 넘는 점수를 맞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토익 점수는 높을수록 좋습니다만, 지원하고자 하는 학교에 따라 이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토익으로 인해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900점 이상의 점수를 3월이 되기 전에 만들어 놓으시길 추천합니다.

III. LEET

1. 강의 수강

아마 리트 시험을 처음 접한 사람들이라면 대부분 추리논증에서 큰 어려움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언어이해는 수능 언어영역과 외형상 크게 다르지 않아 초심자가 접근하기에 어렵지 않으나, PSAT을 준비했던 사람이 아닌 이상 추리논증은 애초에 접근방법조차 헤매기 쉽습니다. 저 또한 처음 시간을 재고 리트를 풀어보았을 때, 언어이해는 무리가 없었지만 추리논증은 절반 밖에 풀지 못해 막막함을 느꼈습니다. 리트 공부에 학원 강의를 반드시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 의견이 갈리지만, 저

는 추리논증만큼은 강사의 강의가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물론 독학을 통해 논리학을 배우고, 기출 분석을 통해 추리논증 시험 자체에 익숙해질 수도 있겠지만 어디까지나 수험적으로 리트를 본다면 시간을 아낄 수 있다는 점에서 학원 강의가 효율적인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학원의 모든 커리큘럼을 따라갈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이 필요한 영역,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정도의 차원에서 학원 강의를 활용하기를 추천합니다. 특히 저는 추리논증 같은 경우 기본 강의를 통해 처음 문제를 읽고 풀어나가는 방법에 대해 배울 수 있었습니다. 개인 시간 활용이 자유롭기 때문에 전 실제 강의 보다 인터넷 강의를 선호했습니다. 강사는 샘플 강의를 들어본 후, 김재형 강사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추리논증 문제를 유형별로 나누어 접근 하는 방식이 가장 체계 맞다고 생각했고, 기본강의를 통해 그래도 시간 내에 추리논증의 모든 문제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심화나 파이널 모의고사 강의는 듣지 않았고, 후에 기출 분석을 한 번 더 제대로 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기출 특강만 추가로 들었습니다.

언어이해는 그간 쌓아온 개인의 독해실력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단기간에 학원 강의를 통해 의미 있는 점수를 올리는 것은 어려운 일일지도 모릅니다. 다만 리트도 수험이기 때문에, 정형화된 유형은 기출 분석 강의를 통해 어느 정도 숙지할 수 있었습니다. 문덕운 강사의 특강을 역시 인터넷으로 수강했으며, 이를 통해 지문이 구성되는 구조를 파악할 수 있어 도움이 되었습니다.

2. 스터디 운영

암기를 기반으로 한 지식형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리트 공부를 혼자 하다 보면, 지루해지거나 나태해지기 쉬운 것 같습니다. 많은 수험생들이 스터디를 통해 리트 준비를 합니다만, 이 또한 다양한 방법이 존재하고, 잘못 운영이 될 시 오히려 수험에 악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다행히 마음 맞는 친구들을 만나 서로 적절한 의견 조율을 통해 면접 스터디까지 잘 이어질 수 있었고, 한 두명을 제외하고 대부분 원하는 학교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공부는 혼자 할 때 진정한 자신의 것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스터디에 큰 할애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먼저 리트 기출 분석을 시작했고, 추리논증 같은 경우 인원수대로 문항을 나누어 담당하는 문제를 정했습니다. 전원이 기출을 1회분을 풀어오되, 자신이 맡은 문항은 칠판에 판서를 하며 설명하는 방식으로 스터디를 진행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서로 풀이방법을 비교해보는데 용이하기도 했고, 또 스스로 설명하며 공부가 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언어이해 기출은

처음에 300자 요약을 시도해보았습니다. 그러나 효용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해, 추리논증과 같은 형식으로 지문을 나누어 담당하는 사람이 문항까지 분석해오는 형식으로 기출을 분석했습니다.

기출 분석을 모두 마친 후 4월부터는,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시험인 미트와 디트 문제를 풀었습니다. 이 때부터는 미리 풀어와서 설명하는 방식이 아닌, 실제로 시간을 정하고 주어진 시간 내에 실전처럼 푸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다만 추리논증은 전회 모의고사를 풀기에는 아직 벅차다고 생각해, 하프 모의고사를 풀었습니다.

여름부터는 본격적인 실전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실제 시험시간과 같은 시간에 언어이해와 추리논증 모의고사를 같이 풀었고, 리트 날짜가 다가올수록 스테디 히트수를 늘렸습니다. 다만 실전처럼 문제를 푸는데 익숙해지는데 목표를 두고, 초창기와 같이 문제를 분석하고 리뷰하는 시간은 따로 갖지 않았습니다.

3. 모의고사

리트는 적성시험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당일 컨디션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할 수 있는 최대한 가장 실전과 같은 환경에 노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학원에서 주최하는 전국모의고사는 적어도 한 번쯤은 응시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물론 학원 강사들이 만든 문제이기에 실제 리트 문제와는 다소 거리가 느껴지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가장 실전과 비슷한 느낌을 느껴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모의고사 점수가 들쭉날쭉 인편이었습니다. 언어이해를 잘 봤다면, 추리논증을 못보고 또 그 반대의 결과가 나오기도 해 사실 공부방향의 갈피를 잡는데는 별로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리트 점수가 받아왔던 모의고사 점수와 크게 다르지 않았던 걸로 보아, 어느 정도 객관적인 실력을 측정하는 데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4. 논술

논술은 리트를 앞두고 한 주에 1~2개의 기출을 실제로 써보는 것으로 대비했습니다. 따로 강의를 수강하지는 않았으며, 강사의 책만 따로 구매해 참고했습니다. 논술에도 물론 어느 정도 정해진 유형이 있지만, 시간을 내어 공부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강사자를 통해 모범답안을 확인 하고, 그와 비슷한 구조로 답안을 작성하고자 했습니다. 이 또한 실전 대비를 위해 항상 논술 답안은 원고지에 쓰는 연습을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원고지 부정기호는 몇 가지 미리 알아두고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Ⅲ. 자기소개서와 면접

1. 자기소개서

자기소개서는 먼저 주변 합격자들의 자기소개서를 구해 읽어 보았습니다. 형식의 일부만 참고 할 수 있었을 뿐, 결국 중요한 것은 그간 본인 자신이 살아온 삶에 어떠한 이야기가 녹아 있는가 입니다. 학교에서 요구하는 자기소개서의 항목이 모두 다른 것 같지만, 결국 묻고자 하는 것은 대동소이합니다. 따라서 저는 키워드 위주로 제가 사용할 수 있는 스토리와 에피소드들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문항에 맞추어 재배열하는 식으로 자기소개서를 작성했습니다. 아마 취업 준비를 할 때 자기소개서를 작성했던 경험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해당 문항을 묻고자 하는 취지를 염두 해두고, 특정 사건 또는 경험을 통해 내가 이러한 점을 배웠고, 이것이 로스쿨에서 법학을 공부하는데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를 최대한 담아내고자 했습니다.

가장 최근에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지인에게 개인적으로 첨삭을 받았으며, 스터디를 통해서도 최대한 많은 이들에게 자기소개서를 읽고 피드백을 받고자 했습니다. 명심해 둘 것은 자기소개서는 얼마나 글을 잘 쓰는지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소개서란 이름 그대로 자기가 살아온 삶을 소개하고 그것이 어떻게 법조인이 되고자 하는 이유에 부합하는지를 잘 설명해 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무엇보다 내가 왜 합격해야 하는지에 대한 당위성을 보여줘 읽는 이를 설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강조하듯, 로스쿨 3년 생활을 무사히 완주하고 변호사 시험에 한 번에 합격할 수 있다는 사실이 잘 드러나야 좋은 자기소개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2. 면접

면접은 리트 때부터 같이한 스터디를 통해 준비했습니다. 찬반으로 의견을 나누어 이야기해볼 필요가 있어 인원을 총원해 6~7명 정도로 운영했습니다. 매 시간 정해진 발제자가 이슈를 제시하면, 현장에서 바로 시간을 주고 찬반을 나누어 각자 발언을 하고 나머지 사람들이 면접관이 되어 질문하는 형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주제는 딱히 법학과 관련된 문제에 국한하지 않았고, 최근 이슈가 된 사회 현상이나 신문 기사들도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면접 준비를 할 때, 아젠다넷을 많이 이용했습니다. 시사 이슈를 정리한 리포트를 볼 수 있는 사이트로 주제에 따라 찬반의 논거도 적절하게 정리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한 예상문제를 가늠하기 위해서는 일간지보다 주간지를 읽는 것이 크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평소 시사 주간지를 즐겨 읽었기에 이를 바탕으로 저

는 발제를 자주 했습니다. 후에 제가 발제해서 다뤘던 주제들이 실제 면접 질문으로 많이 나와 함께 준비했던 스터디원들이 놀라기도 했습니다. 법학 관련 문제는 주로 인권법 책을 통해 대비했습니다. 이 또한 역시 주제에 맞는 찬반 논거가 잘 정리되어 있어, 이 책 한 권만으로 충분했다고 생각합니다.

면접 예상 질문을 따로 뽑아 공부하지는 않았습니다. 찬반 논거도 미리 찾아보기 보다는 스터디에서 바로 생각하고 정리해 말하는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어차피 실제 면접에서 내가 모르는 문제가 나와 당황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논거를 외워가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보다는 나의 생각을 어떠한 논거로 조리 있게 말할 것인지, 또한 반박 질문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대답해야 하는지를 대비했습니다.

V. 나가며

실제 로스쿨에 입학 해보니, 예상 했던 것과 다른 점도 있고 기대했던 것보다 더 좋은 점도 많습니다. 입학 하고 한 달이 지나, 합격기를 정리해보니 로스쿨 합격을 간절히 바랬던 초심의 마음을 지키기란 또 역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는 의도치 않게, 전업 수험생으로서 리트를 준비하며 지난 한 해를 보냈습니다. 이제 와서 드는 한 가지 아쉬운 마음은 내가 너무 로스쿨 하나만을 바라보고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합격 이후에 삶에 대해서는 진지한 고민을 해보지 못했기에, 늘 불안한 마음을 줄였던 것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사실 로스쿨 입학은 겨우 시작에 불과합니다. 입학 후에는 변호사 시험이라는 거대한 관문이 기다리고 있고, 당장 주어진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준비하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벅칩니다. 로스쿨 입시를 위해 토익, 리트, 면접 등을 준비하는 것보다 더 큰 스트레스와 압박이 합격 후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은 눈앞에 로스쿨 입학이 큰 관문처럼 보이겠지만, 조금 더 시야를 넓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이루고자 하는 것은 법조인이 되는 것이지 로스쿨 학생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순간의 토익, 리트 모의고사 점수에 일희일비 하는 것은 소용없는 일일 것입니다. 설령 올해 로스쿨 입시에서 실패한다고 한들, 법조인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변하지 않는 한 내년을 기약할 수 있습니다.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그 기간 법학 선행을 하며, 미리 실력을 다지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입학만을 위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 평생의 직업인 법조인이 되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면 조금 더 그 시간을 수월하게 보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췌록 저의 짧은 경험이, 법조인이 되고자 하는 누군가에게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